

오피니언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문화와 창조

도시와 삶



이 무 용

“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의 저자 다니엘 핑크는 미래 인재의 조건을 하이 콘셉트(예술적·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와 하이 터치(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라는 말로 요약한다. 그 인재가 바로 예술가를 비롯한 문화전문가다. 원시시대엔 사냥꾼, 농업시대엔 농부, 산업시대에는 블루칼라 노동자, 지식시대에는 화이트칼라 경영자가 중요한 존재였다면, 미래는 문화전문인력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핵심 인재라는 것이다.

”

21세기는 창조문화의 시대다. 롤프 엔센, 짐 데이토 같은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를 꿈의 사회(dream society)로 표현한다. 감성, 즐거움, 재미, 영혼, 이야기, 여성성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통해 다양한 꿈을 꿈장, 실현, 소통케 하는 문화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꿈의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 미래 인재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의 저자 다니엘 핑크는 미래 인재의 조건을 하이 콘셉트(예술적·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와 하이 터치(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라는 말로 요약한다. 그 인재가 바로 예술가를 비롯한 문화전문가다. 원시시대엔 사냥꾼, 농업시대엔 농부, 산업시대에는 블루칼라 노동자, 지식시대에는 화이트칼라 경영자가 중요한 존재였다면, 미래는 문화전문인력이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핵심 인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전문인력들은 핵심 인재로서 제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 얼마 전 광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꿈은 문화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꿈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지역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문화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와 지역문화기관 관계자들의 열정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꿈은 이들이 느끼는 우리 지역의 문화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전공과 연계된 문화일자리의 부족이다. 정규직과 같은 안정된 취업기회 부족, 채용정보 부족, 다양한 현장경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학생들이 지역에 가장 바라는 것은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문화예술정보와 소통의 장 제공, 창의적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조였다.

이러한 우리의 현주소를 고려해볼 때,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서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끌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소통의 장 제공이다. 꿈은 이들과 전문가들이 만나는 정기적인 문화포럼을 개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의 문화적 흐름을 학습하고, 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주체들 간의 사교와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해야한다.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컨벤션센터, 문화전문대학원 등 문화 관련 공공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둘째, 문화정보의 체계적 구축이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문화전문인력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1인 창작기업지원 프로그램이나 기획창작스튜디오 제공, 문화전문인력 양성 기관 등 다양한 공간, 예산, 컨설팅, 교육 지원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의 문화일자리 관련 정책, 문화기업의 동향과 흐름,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일자리 수요와 가능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문화정보센터 기능이 필요하다. 문화재단과 문화전문대학원, 광주발전연구원 등 전문기관들이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풀어가면 좋겠다.

셋째, 안정된 문화일자리 기회에 대한 적극적 공략이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설립될 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관광공사, 제2

컨벤션센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 영암의 F1 자동차대회와 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 여수엑스포와 같은 축제관람이벤트 개최 등으로 문화일자리가 확산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러한 공공문화일자리에 대한 꼼꼼한 체크와 적합한 자질을 갖추는 준비가 필요하다.

넷째, 창조적인 문화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지역은 문화, 관광, 환경, 도시브랜드 분야에서 차별화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18과 인권브랜드, 근대문화의 태동지 양립동 역사문화마을, 예향과 미향의 남도문화,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 해양관광, 친환경 메가관광이벤트 등 지역특화자원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문화일자리를 창조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로 육성을 디자인하는 창조적 문화전문인력 양성이다. 역사문화공간을 재생시키는 창조공간 디밸로퍼, 창조관광 전략가, 일상문화창조 컨설턴트, 도시문화경영가, 장소마케터, 도시브랜딩 컨설턴트, 만남경영기획가, 도보문화경영자 등이 최근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는 문화전문인력 모델들이다.

특히 상상력으로 여러 영역을 통합하는 종합적 문화전문가(cultural generalist), 서로 상관 없어 보이는 이질적인 것을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네트워커(networker)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부즈맨 칼럼



임 선 숙

F1 코리아그랑프리 첫 대회가 F1 머신만큼 아찔한 속도로 지나갔다. 이번 대회는 우리 안에 숨어있던 질주본능을 깨우고, 한편으로 우리 지역도 세계를 상대로 내놓을 수 있는 퀸가를 가지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앞으로 개최될 F1 대회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활동소가 될 것 같다.

물론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충체적인 준비부족과 극심한 운영 미숙으로 빛어진 불편사항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F1 대회가 개최되기 까지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는 ‘절반의 성

였다. 그렇지만 그 기사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F1 조직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고, 결국 기자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또 하나, 대회 개최 전까지 보도의 중심이 경기장의 건설과 겸수 등 하드웨어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친 점이다. 그려보니 상대적으로 F1의 흥보나 운영 전반의 점검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F1 대회는 우리가 처음 치르는 세계적 대회였던 만큼 좀 더 일찍부터 취재팀을 구성하여 문제점을 짚었더라면 위와 같은 아쉬움은 없었을 것이다.

종 고 칼 럼

조 영 대

가을바람이 지나가더니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온 산야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푸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안겨주더니 가을에는 땅으로 돌아갈 날을 앞두고 이토록 화려한 색들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나뭇잎들의 사랑에 고마움과 함께 절로 반성의 마음도 갖게 됩니다. 나는 지난 한 해 이웃들에게 열려보니 활력과 기쁨을 주며 살아왔는가, 나는 나를 비우며 다른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반성해 봅니다.

둘째는 가을걷이로 쓸쓸히 비어있고,

고인의 명복(冥福)을 빌면서 사후(死後)의 삶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저 결국 사라지고 말 세상 것들에만 마음을 쓰고 사는 사람들의 모순..”

가요 ‘하숙생’이라는 곳에서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인생은 벌거숭이, 빙순으로 왔다가 빙순으로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 두고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곡입니다.

유럽 어느 공동묘지 비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게, 내일은 너에게!” 인간은 누구나 반

F1특별취재팀 다양한 기사 계속 제공을

가을, 돌아감의 계절

‘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4년 전인 2006년 10월, F1 대회의 유치를 선언했을 때의 내외부의 냉소적인 반응들, 2009년 10월 국회에서 F1지원 법이 통과된 뒤에도 많은 여론은 여전히 대회개최 가능성을 의심하고 걱정하면서 활동을 끼고 지켜보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은 대회개최를 일주일 남겨둔 2010년 10월 11일, 국제자동차연맹의 경주장의 서킷(경주용 트랙) 검수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팔짱을 풀고 F1 대회에 대한 기사를 본격적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광주일보는 비교적 일찍감자부터 F1 대회를 알리고, 그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기사를 꾸준히 보도해왔다. 특히 F1 대회를 앞두고는 7명으로 구성된 특별취재팀을 꾸려 F1을 알리고, F1대회를 둘러싼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사를 제공해주었으며, 대회의 준비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나가면서 F1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광주일보의 F1 보도에도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일보는 대회 개최 4일 전인 10월 18일자 기사에서 F1 경주장으로 가는 길을 기자가 직접 점검하면서 느낀 교통대책,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당시 많은 언론이 대회를 홍보하고 소개하는데 며칠 끝난 것과 대조되는 정말 좋은 기사

하지만 광주일보는 곧바로 ‘영암 F1 다시 시작이다’라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여려 측면에서 점검하고 앞으로 개최될 대회에 대비한 한층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밭 빠른 대응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2011년에 개최될 F1대회는 이번 대회의 부실을 딛고 ‘완전한 성공’을 이루어 내야만 할 것이다. 내년에는 대회개최를 코앞에 두고 그때마다 허둥지둥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광주일보에 바란다. 이왕에

가을바람이 지나가더니 푸르렀던 나

듯이 우리는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온 산야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푸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안겨주더니 가을에는 땅으로 돌아갈 날을 앞두고 이토록 화려한 색들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나뭇잎들의 사랑에 고마움과 함께 절로 반성의 마음도 갖게 됩니다. 나는 지난 한 해 이웃들에게 열려보니 활력과 기쁨을 주며 살아왔는가, 나는 나를 비우며 다른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반성해 봅니다.

둘째는 가을걷이로 쓸쓸히 비어있고,

고인의 명복(冥福)을 빌면서 사후(死後)의 삶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저 결국 사라지고 말 세상 것들에만 마음을 쓰고 사는 사람들의 모순..”

가을, 돌아감의 계절입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오피니언

시 설

도시공사, 지하상가 관리 ‘멋대로’ 해도 되나

광주도시공사는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관리를 이유로 충금지하상가 상인들의 권리를 제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상인들이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에너지 절감 및 경기 점체에 따른 고객 감소로 인해 도시공사 측에 휴일 수를 현재의 연간 60일에서 14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5년째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지난 9월 강운태 광주시장과의 면담에서 대다수가 찬성의견을 내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강 시장의 확답까지 받았으나 도시공사 측이 이미져 무시하고 있다. 지난달 입주 상인 85명이 투표를 실시해 84%의 압도적인 찬성의견이 나왔는데도 도시공사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한다.

도시공사 측의 묵살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단 1명의 반대의견이라도 있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는가. 공기업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횡당할 따름이다.

따라서 도시공사 측이 휴일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P의류점 등 일부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 억지라고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도시공사는 단지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주체일 뿐이지 상인들의 자율적 권리를 자체하는 곳은 아니다. 전국 어느 지하상가에도 이런 예는 없다고 한다.

도시공사 측의 묵살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단 1명의 반대의견이라도 있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는가. 공기업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횡당할 따름이다.

우겠다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모를 통해 시 인사위원회가 후보를 압축하자만 결국은 시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밀실 인사’였다는 것이다. 차기 시립미술관 선임을 놓고도 벌써 이런저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미술계 안팎에서는 “이미 시장 관계자가 특정 후보를 만나 사전 면접을 했다”는 등 ‘내정설’까지 떠돌고 있다고 한다.

이번 시립미술관 인선에서 또다시 구태(舊態)가 되풀이된다면 미술계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계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특히 예전처럼 선임을 둘러싼 갖은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강운태 시장의 몫이다.

그동안 시립미술관 선임을 둘러싸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 미술계가 분열되는 등 커다란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이 같은 잡음은 미술관 선임이 능력보다는 인사권자인 시장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차기 시립미술관 선임을 놓고도 벌써 이런저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미술계 안팎에서는 “트리케라톱스”는 “세계의 뿔이 있는 얼굴”이란 의미이고, 영화 ‘쥬라기공원’에서 주인공들을 공격했던 ‘밸로카립토’(밸로시aptator)는 “날쌘 도둑” 뜻이다.

공룡 이름에도 드디어 한국명이 등장했다.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가 그 주인공이다. 속명(코리아)과 종명(보성)이 모두 한국 관련 단어인 경우는 처음인데, 한국 토종공룡이 국제 공인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가 보성군 드립랑에서 비봉리에서 발견한 화석을 토대로 5년만에 복원했다고 한다. 코리아와 보성이라는 이름은 주인공이 되어온 2005년 4월 20일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등장했다.

브론도사우루스는 거대한 몸집으로 인해 걸을 때마다 천둥이 치는 척처럼 땅이 진동한다고 해서 ‘천둥 도마뱀’이라고 불렸고, 스데고사우루스의 스데고는 등줄기를 따라 나 있는 골판을 가르

는 일 것이다. 지구상에 살았던 육식공룡 가운데 가장 무섭고 사나운 공룡으로 꼽히는 것은 티라노사우루스다. 티라노는 ‘폭군’, 사우루스는 ‘도마뱀’, 렉스는 ‘왕’이라는 뜻으로 ‘폭군 왕 도마뱀’이라는 의미이다.

브론도사우루스는 거대한 몸집으로 인해 걸을 때마다 천둥이 치는 척처럼 땅이 진동한다고 해서 ‘천둥 도마뱀’이라고 불렸고, 스데고사우루스의 스데고는 등줄기를 따라 나 있는 골판을 가르는 등줄기를 따라 나 있는 골판을 가르

/정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报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